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5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3호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돌을 기념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21호) - 주체 91(2002)년 3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의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회에서 이남에서의 영웅적인 4월 봉기가 실패하게 된 주체적 원인은 바로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총화하시며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바로 이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남의 혁명가들은 이남혁명의 참모부이며 이남민중의 전위대인 ≪통일혁명당≫창당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며 주체 53(1964)년 3월 15일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진행된 통일혁명당창당 서울시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은 이남역사상 최초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식이었다. 결성식에서는 김종태동지가 만장일치로 서울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통일혁명당은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을 전국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이남지역의 혁명을 당면목표로 하는 이남혁명의 현지사령부였다.

통일혁명당은 60년대 내내 주체의 지도사상을 확립하고 견실하고 유능한 영도핵심을 발굴육성하며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국민대중속에 튼튼히 토대함으로써 자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드디어 주체 58(1969)년 8월 25일 그 중앙위원회를 결성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주객관적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 74(1985)년 7월 27일에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남변혁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창당과정에서 서울시준비위원회, 전라남도준비위원회가 공안파쇼당국에 의하여 파괴되는가 하면 통일혁명당 창당 이후 70년대 내내 그 하부조직사건이 이어지는 시련을 겪었지만 위대한 혁명사상과 튼튼한 대중지반, 그리고 당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어 오히려 당은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당에 대한 이남민중의 신뢰 또한 절대화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와 결단으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어 마침내 조국의 통일혁명이 일정에 올려지게 된 오늘의 정세는 북과 남의 혁명역량을 통일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며 전국적 관점의 정치, 조직, 투쟁 노선을 확립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 주체세력이며 전위당의 한 형태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일혁명시기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위원장으로 모신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한 박달동지처럼 이남혁명투쟁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통일혁명당 서울시조직을 책임진 김종태동지의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과 혁명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김종태동지

우리 이남의 열혈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혁명적 모범을 따라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분투하고 계속혁신할 것이다.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

조선 외무성대변인 담화 - 주체91(2002)년 3월 13일 평 양

최근 미국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쉬행정부가 로씨야와 중국 그리고 우리 나라와 수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를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수 없는 군사적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핵공격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벽두부터 세계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걸음걸음 세상을 경악시켜 온 부쉬집단이 이제는 력대 선임행정부들이 준수해 온 핵불사용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으로 된다.

알려 진바와 같이 핵무기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담보를 공약한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미국은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련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인 핵군축합의들을 실현, 유지해 온 근본기초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은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었다.

이 담보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사이에 우리의 핵시설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을 골자로 하여 조미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합의에도 아랑곳 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합의도 다 뒤집어 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부쉬의 집권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는 함께 살수 없는 핵불량배국가로 군림하려 하고 있는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해 하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 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 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망상이다.

핵광신자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것이다.

담화
1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돌을 기념하며
1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2)

세기와 더불어
4 4장 4절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2)

칭송
5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
5 우리는 맹세한다 /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한국민족민주전선
6 전위조직결성의 고귀한 첫 열매
6 정치사전 – 통일혁명당
7 ≪악의 축≫론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
8 오늘에 다시 보는 마산봉기
8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3일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13일 보도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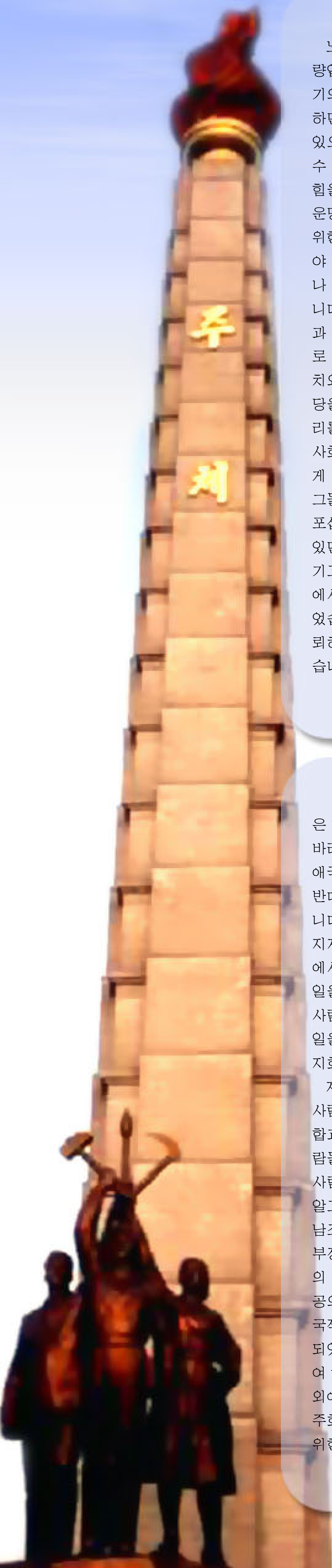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5백번째 수요시위
12 전국민적인 차원의 인터넷검열반대운동으로
13 왜 이 때 대규모 군사훈련인가?
13 부시 핵정책은 공멸 초래
13 부산대총학, 미제품 불매운동 동참
14 비판적 지지자들이여, 진보세력의 실체를 인정하라

운동강좌
15 합법적인 대중조직, 합법적인 대중운동에 대하여 (2)

광고
15 신입생들의 대학입학을 축하하며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3)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8월 1일



노동자와 농민, 인텔리는 민족의 기본역량입니다. 노동자, 농민, 인텔리들이 각각 자기의 특색을 살리면서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면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 주체를 이룰 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인텔리들과 힘을 합치고 인텔리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운명을 하나로 결부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텔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을 창건할 때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인텔리를 우리 당의 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과 붓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할 때 인텔리들을 일제에게 복무하였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민족자주정신을 믿고 적극 포섭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던 인텔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어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내세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인텔리들은 우리 당을 신뢰하고 따랐으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다 바쳤을 뿐 아니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도 참가하여 잘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텔리들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열렬한 애국정신과 견결한 반미자주정신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와 함께 각이한 생활경위를 가지고 각이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불행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세에 가서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려보자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종교인들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을 인공적으로 분열시켜놓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아들딸들인 청년들이 ≪국군≫에 들어가 미국사람들의 지휘밑에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와 민족분열정책의 도구로 복무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국군≫장병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똑바로 꿰뚫어보도록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군≫장병들이 자기 민족과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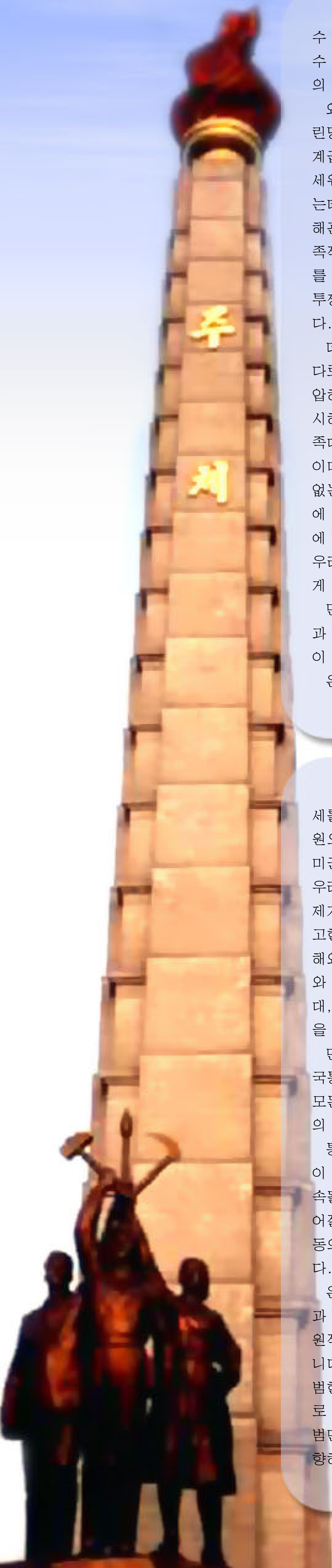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민족 앞에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동무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덕신선생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국군≫군단장도 하고 ≪외무부장관≫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조선의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으면서 친미반공의 길을 걸어왔지만 점차 집권자들의 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처사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걷기 위하여 해외에 망명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어느 길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서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존엄을 당당히 떨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정견과 주의주장, 신앙에 관계없이 다 포섭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정당하고 일관성있는 정책과 민족대단결 노선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천도교인으로서 일생동안 동경하고 모색하던 지상천국을 조국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에 바칠 결심을 품고 조국에 영주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이 지난날에는 비록 우리와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으나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의 희망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와 손잡고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 조국의 융성발전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대오에 서서 겨레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열사로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이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적 계급, 계층의 사상과 이념을 옹호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고 있는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어느 한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올려세우거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민족끼리 정견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관권의 힘으로 탄압하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는 것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민족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하지 않고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 민족이 언제가도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사이에 접촉과 내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나가자면 민족내부에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북과 남이 오랫동안 격페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일부 사람들은 한핏줄을 이은 자기 동포들을 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민족의 단합을 바라면서도 신뢰가 부족한데로부터 같은 동포들과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면 자유로이 내왕하면서 서로 접촉하여야 하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온갖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민족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해외 동포들사이의 자유내왕과 접촉,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접촉을 실현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이 큰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북반부사람들과 마주앉아 통일논의를 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하고 있습니다. 70고령의 문익환목사와 나어린 임수경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과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지금 이 법의 희생물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이 실현될 수 없으며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적인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성원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그들의 분열주의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수만명의 미국군대와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직적인 연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려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다같이 자원적으로 망라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범민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그러한 조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맡고 있는 임무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동포들 속에서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7, 000만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된 다음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시아와 세계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의 전초선에서 조국과 민족이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4.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2)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앞에 붉은 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 앞에 비스듬히 서있던 그 잊지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론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성원들이 해야할 과업으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해서와 당조직 건설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ㅌ·ㄷ≫의 강령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건설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에 넘치는 열 변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량을 헤치며 먼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다.

김혁의 시랑송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례총을 쏘고싶소.≫

나는 일본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 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었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 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 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명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적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왔다. 자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어왔다.

그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왔다.

국내에 당조직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 당조직을 무었다. 우리의 청소한 당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오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당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유구한 선린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류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종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주었으며 중국당과 중국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당과 중국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당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인민의 방조를 받을 수 없었으며 반제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당과의 련계를 중시한 것은 만주성위 산하의 당조직들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동만 특위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있었고 동만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다수가 조선사람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당원비률에 있어서도 90%이상이 조선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동만지역 당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지방에 조선인 당원들이 많은 것은 간도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숙에서 ≪ㅌ·ㄷ≫를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공산당과의 련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ㅌ·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을 우리와 중국공산당과의 련계문제를 성숙된 요구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 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조직과 련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후에는 화룡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중국공산당조직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 등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녕안현당의 책임적 지위에 있으면서 동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련계를 가졌으며 동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동만특위에 파견되어왔을 때는 그와 깊은 련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공산당 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동장영이 희생된 다음에는 위증민과 련계를 가지었다. 그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이었던 반동무와도 련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공산당과의 깊은 련계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나간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1국1당제에 관한 국제당 로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있는 조치였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종일관 조국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프로레탈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1963년에 최용건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은래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깊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 때 그는 축하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선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련군은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련합된 혁명무력이었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증민 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곤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 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카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후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노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끝)

일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

김정일장군께서는 인민군대의 사상정신력이야말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시련과 난국을 승리적으로 타개하며 주체위업완성의 진군로를 열어 놓는 근본열쇠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전군의 사상정신력을 급상승시킬 새로운 대중운동으로서의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다.

1996년 새해의 첫날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김정일**장군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오중흡7련대는 언제나 제1선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 바쳐 보위하였으며 참다운 혁명가, 총 잡은 군인들이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고 보위해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고, 전군이 오늘의 7련대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리기로 결심하였다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시였다.

오중흡7련대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비롯하여 언제나 맨 앞장에서 **김일성**장군빨찌산사령부를 옹위하여 조선혁명의 운명을 지켜 낸 항일빨찌산부대이다. 오중흡7련대의 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한 가장 고결한 혁명정신이고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진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드는 육탄정신이고 날아 드는 적탄도 한몸으로 막아 나서는 성새정신, 방패정신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장군께서 발기하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전군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장병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으로 준비시켜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이였다.

1997년 9월 어느 날 **김정일**장군께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검열을 받고 있는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였다. 부대에 들어 서니 분위기부터 달랐다. 여기저기에 힘 있는 구호들이 나붙고 기발들이 휘날렸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부대를 돌아 보시며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하셨다. **김정일**장군께서 특별히 높이 평가하신것은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였다.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단위인 부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현지지도학습실을 따로 꾸려 놓고 여기서 자체로 만든 부대현지교시도록판을 통한 교양사업을 오래전부터 정상화해 오는데 실지 군인들의 사상적준비에 큰 실효를 가져 오고 있었던것이다.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는 예술공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공연형식도 새롭고 전문병의 특색을 잘 살린데다 모든 종목들이 수령결사옹위사상으로 관통되여 있었다.

합창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독창과 방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제창 ≪정일봉의 우뢰소리≫등 종목들이 바뀌여 공연은 시와 합창 ≪우리는 맹세한다≫로 절정을 장식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인들이 공연을 통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최고사령관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자기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랑만에 넘친 군무생활을 잘 보여 주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부대를 기쁜 마음으로 돌아 보았습니다. 이 부대는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을뿐아니라 지휘관들의 부대지휘관리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나는 부대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동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김정일장군의 이러한 지도력에 의해 오늘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부대, 최고사령관의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으로 활발하게 벌어 지고 있으며 이 운동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사상의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다지게 되였다.

송시

우리는 맹세한다

우리는
펄펄 끓는 쇠물가마속에
이 몸을 던진대도
시퍼런 도끼로 이 몸을 친대도
두눈과 심장을 도려 낸대도
장군님, 장군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사상과 신념, 량심과 의리로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충신중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이 한몸 원쑤의 핵폭탄도 막아 내는
최고사령부의 지붕이 되고
이 한몸 억척으로 열리지 않는
최고사령부의 자물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김정일제일친위대, **김정일**제일결사대가
되겠습니다!
전군의 맨 앞장에 선
오늘의 7련대가 되겠습니다.

흠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기념강연회가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시조선친선협회에서는 13일 기념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강연회에는 방글라데시노동당 중앙위원회 총 비서이며 국회의원인 라쉐드칸 메논, 방글라데시통일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총 비서 비말 비스와스, 방글라데시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 비서 딜리프 바루아를 비롯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탁월한 영도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많은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도록 영도하고 계신다.

사람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 끝없는 아량과 포옹력, 겸손성은 그이의 풍모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계신다.

오늘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 정치적 유기체로 굳게 결합된 대가정으로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인민의 낙원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의 휘황한 미래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우간다 캄팔라 키탄테 인민학교의 **김정일**명칭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학급에서도 기념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장정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강연회장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글발이 나붙어 있었다.

강연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강연회에는 교장을 비롯하여 학교 교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학급 담임교원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스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계신다.

오늘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있다. 우리들은 존함을 모신 학급에서 공부하는 긍지를 안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강연회 끝에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전위조직결성의 고귀한 첫 열매

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주년에 부쳐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3월15일은 한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지 38주년이 되는 날이다.

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결성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전위조직건설의 고귀한 첫 열매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중의 투쟁에 닻을 올리고 키를 잡을 조타수, 한국변혁운동의 전위조직이 없었던 탓에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한 수많은 대중운동들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고 4.19민중봉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의 교훈을 남겼다.

한국변혁운동의 향도적인 전위조직결성은 민중의 절박한 요구이고 시대적 요청이였으나 막상 당을 창건하자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암중모색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이남의 변혁운동가들과 각계 애국민중에게 광범위한 대중 속에 뿌리박은 전위당창건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한국변혁의 큰 뜻을 품고 동지들을 하나하나 규합하여 뜻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 진로를 찾지 못해 하던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주석님의 전위당창건방침은 그야말로 어둠을 불사르고 광명을 주는 태양의 빛이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정태묵, 이문규, 윤상수 등 변혁운동가들은 서울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당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이러한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64년 3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진행되었다.

결성모임에서는 ≪창당준비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조직의 명칭을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라는 의미에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의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이에 토대하여 당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당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했다.

김종태동지

정태묵동지

김질락동지

회의에서는 김종태, 최영도, 정태묵, 김질락, 이문규 등 여러 동지들을 창당조직위원으로 선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민전창당의 역사는 이렇게 첫 걸음을 떼었다.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위에서 당핵심을 육성하는 사업과 서울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지에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 그리고 당의 외곽단체를 내오는 사업들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창당준비위원회 성원들은 공장가와 농어촌 곳곳에 들어가 당세확장에 전념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투사들을 중핵으로 하여 당대오를 부단히 확충했으며 당의 조직적 지반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그 과정에 온갖 시련과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지만 전위투사들은 끝내 1969년 8월25일 역사적인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선언과 강령을 내외에 선포했다.

주체의 전위당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멀리 전진해 왔다.

그후 통혁당은 한민전으로 개칭,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 우리 민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강력한 자기의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전위조직의 영도밑에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오늘 한민전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경모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변혁운동의 주체인 민족자주역량을 굳건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한민전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재판정에 선 임자도 조직원들

정치사전

통일혁명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정치적참모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25권, 307페지)

남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여러 도들에서 지하혁명조직들 뭇고 당의 지도핵심을 키웠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위원회와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을 내오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받아 들여 그 대렬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도서들을 출판하고 당기관지인 비합법적신문≪혁명전선≫과 합법적 출판물인 ≪청맥≫을 발간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급 당 조직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였다. 한편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인민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게 하였다. 이와 함께 비합법적조직으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비밀독서회를 내오고 합법적조직으로서 ≪60년대학사회≫, ≪청년문학가협회≫, ≪청맥회≫등 수많은 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려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키워 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1964년 6.3봉기와 1965년 8월투쟁 등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67년 6.8부정≪선거≫와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과 남조선혁명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간적인 공업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농촌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기관들에까지 당조직이 확대되였으며 당의 핵심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창당을 위한 준비가 튼튼히 갖추어 지게 되자 1969년 8월 25일 서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핵심들로써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혔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피 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 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으며 승리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은 창건이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원쑤들의 거듭되는 반동공세를 물리치면서 자기 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꾸려 놓았으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오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으며 투쟁과정을 통하여 불패의 대오로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론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0일~12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한 이북과 이란, 이라크에 대한 ≪악의 축≫망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시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론을 계속 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시의 ≪악의 축≫론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이런 화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0일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보유를 운운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북, 이란, 이라크가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부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을 했죠.
사회자 : 부시의 독선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악의 축≫망언은 나오자마자 국제사회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러시아 국방성은 2월 2일 뮌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반테러작전을 이북을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악의 축≫이라는 미국의 견해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이북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 어떤 근거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에 대해 미국의 관점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국제사회의 관점이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부시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이라고 폭언한데 대해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미국의 사회여론과 국제여론이 ≪악의 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유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변인은 그러한 표현을 계속 쓰는 경우 그 결과는 반드시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네팔의 정당, 사회단체와 방글라데시 정당,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정당, 단체들이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신랄히 비난, 규탄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유럽나라들과 동맹국들 속에서도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나라들은 이번 부시의 망언이 일방적인 강권과 독선주의로 일관돼 있으며 세계 정치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거라고 경고했잖아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느 한 나라가 독단으로 나서서는 대량살육무기문제와 테러의 근원문제를 비롯해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방주의적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어요.
　독일 총리는 반테러전쟁이 보다 큰 세계적 정의의 영향하에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한편 영국 외무장관 등 유럽연합의 고위인물들은 이북을 다음 타격대상으로 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다른 방도가 없다고 확신될때에만 군사행동으로 넘어가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상 이케다 유끼꼬는 미국이 이북과의 회담통로를 일체 차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신중히 처신할 것을 주장을 했죠.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국제회의들에서까지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뉴욕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단 연석총회에 참가한 나토 사무총장은 1월 31일 기자단에 ≪악의 축≫에 대한 부시의 연설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테러와 연결시킬 근거는 없다고 말했어요.
　또 세계사회연단 제2차 연례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부시의 ≪악의 축≫론을 비난하고 전쟁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여러나라 신문, 방송들이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프랑스신문 ≪리베라숑≫과 ≪몽드≫는 ≪악의 축≫을 물리치겠다는 부시를 풍자만화의 주인공으로 그려서 조소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부시는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독설을 늘어놓다가 오히려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는 대상으로 됐어요.
　프랑스 신문 ≪리베라숑≫은 부시대통령이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북과 이라크, 이란은 물론 유럽과 아랍지역,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쓰고 이북이미국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신문 ≪팔레스 타임스≫는 ≪악의 축≫이라고 한 부시의 호전적인 궤변은 반테러연합이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분열되게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영국 TV방송은 부시의 전횡은 미국에서는 잘 접수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밖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신을 줄 것이다, 미국은 자기의 지배주의적인 입장으로 하여 이미 질시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었다, 부시의 단순한 정책과 일방적인 견해가 이 증오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밖에도 체코 신문 ≪팔로레즈니≫, 월남 신문 ≪영변≫, 일본의 NHK텔레비전방송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 신문, 방송들이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규탄하는 글과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지 않습니까.
　전 미국무부장관 올브라이트는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의 ≪악의 축≫론을 큰 실책으로 혹평을 했습니다. 그는 부시의 외교처리방법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이 법도 없고 이성을 잃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북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부시팀이 클린턴행정부시기에 이북과 관계개선을 위해 수립해놓은 것을 한순간에 망쳐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문 ≪USA 스페이≫는 부시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임자들은 부시의 연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많은 나라들과 국제여론들이 부시의 ≪악의 축≫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비난하고 있고 여기에는 동맹국들과 미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는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악의 축≫론을 제창하고 있잖아요.
윤정원 : 부시는 지난 2월 3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전투복차림으로 나타나서 ≪악의 축≫론을 또다시 줴쳤고 얼마전에 일본과 한국행각시에도 ≪악의 축≫망언을 했습니다. 중국행각시에는 ≪악의 축≫발언에 대한 지지를 받아보려다가 오히려 배격을 당하는 희비극까지 벌어졌죠.
사회자 :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의 축≫론을 계속 들고다녀야 망신밖에 당할게 없다는 건 날이 흐를수록 더욱 명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한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캐나다 총리와 만났을 때에도 다시한번 이를 강력히 규탄을 했어요. 그는 ≪악의 축≫이라는 검은 명단을 작성하는 것과 유엔의 승인없이 주권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는 최근 아바나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면서 미국이 이북과 이란,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이며 그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의도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를 했죠. 그는 국제문제들은 무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독일 잡지 ≪쉬트겔≫과의 회견에서 부시의 ≪악의 축≫론과 거리를 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외교구상에 대해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월 19일 우크라이나 외무성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 개별적인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망언으로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악의 축≫론을 계속 들고 다니는데 대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동맹국들속에서 대미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유럽연합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놓고 그것을 미국 대외정책의 일방주의, 단독주의로 비난을 했어요.
　얼마전 스페인의 칼자웨스에서 진행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의 비공개회의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 의원인 패튼은 나는 부시의 발언이 심사숙고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을 절대주의, 강요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구요. 프랑스 외무장관 데들리는 국제문제들을 자기의 해석과 이해관계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야성세계의 세계화를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한 새 규정을 바랄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매번 자기 힘을 믿고 여기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그 입장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담당 국무상은 미국의 드팀없는 동맹국이라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물오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테러전 확대를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이 혼자서 세계전연을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장관 나카다니는 지난 2월 15일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염두해 두고 이북을 이란, 이라크와 같이 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북이 이란, 이라크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북이 알케이다나 탈레반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부시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론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는 지난 2월 8일에 열린 유럽지역 정당들의 토론회에 참석한 25개 나라의 40개 정당대표들이 부시에게 보

낸 항의편지에서 강하게 울려나왔잖아요.

그들은 부시에게 보낸 항의편지에서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 공격한 것은 세계 민중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부시의 무분별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들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반대하는 투쟁을 또 힘있게 벌일거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끝으로 유럽지역 정당들은 앞으로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며 이북의 편에 적극 서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정원 : 전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은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투쟁에 관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부시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은 극히 유치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빚어낸 손실을 보상하자면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한편 전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는 지난 2월 22일 미시간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부시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부시호전광의 ≪악의 축≫망언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국제여론,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는 내외의 항의비난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론을 계속 들고나오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만약 부시가 ≪악의 축≫론을 계속 들고 나오면서 세계를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넣으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한다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거고 미국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각계 국민들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규탄배격하는 투쟁을 더 가열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부시일당이 떠드는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개발, 생산, 배치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또 그걸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무기고에는 2만여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대량살육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것으로 인류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사상과 제도, 가치관을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악으로, 부정의로 몰아붙이는 미국식 기준이야말로 악의 기준이라고 하겠죠. 미국은 악의 본산이고 악의 원흉이라 할겁니다.

오늘에 다시 보는 마산봉기

노선일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60년 마산봉기 당시 진압 경찰의 총탄 흔적이 선명한 경남 마산 무학초등학교 담

3월은 춘삼월이라 세월타고 찾아오는 자연의 봄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은 회억의 봄도 왔다. 그것은 이 땅의 봄이 단순히 자연의 계절만이 아닌 투쟁의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역사의 갈피 속에는 마산봉기도 새겨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날에 마산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승만독재정권이 날조한 ≪정 · 부통령≫선거를 반대하는 의로운 항전에 나섰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이승만정권 물러가라≫,≪자주정권, 민주정권 세우자≫,≪부패정권, 사대정권 갈아엎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쇼독재와 부정, 불의에 항거해 용감히 싸웠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포로 봉기자들 속에서는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산봉기는 요원의 불길처럼 경향각지로 확산되었다.

특히 4월11일 경찰최루탄에 맞아 희생된 김주열열사의 시체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마산봉기는 더욱 고조됐다. 봉기자들은 총과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돌과 총알이 맞서는 격열한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양측의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여학생들까지 치마에 돌을 담아 봉기자들에게 날라갔다. 그들은 ≪김주열군을 살해한 경찰을 학생들에 넘기라≫고 요구하며 자유당 마산시지부, 마산경찰서, 마산일보사와 ≪폭동수습대책회의≫장소인 창원군청을 습격파괴했다.

또한 마산시청을 들이치고 여러가지 문서들을 소각했으며 부산검찰청 마산지청, 세무서, 중앙동 경찰파출소 등을 파괴해버렸다.

3.15부정선거반대로 시작된 마산봉기는 4.19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참으로 마산봉기는 자주와 민주를 위한 애국항전이었고 독재와 부정부패를 용납치 않는 민중의 굳센 의지와 애국적 기개를 힘있게 과시한 장거였다.

그때로부터 마흔두해가 흘렀지만 열사들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했다. 열사들이 외치던 자주와 민주는 의연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이 땅에 외세가 남아있는 한 진정한 자주와 민주란 있을 수 없다.

정의를 사랑하는 각계 애국민중은 선열들의 그 넋을 이어 참다운 자주와 민주를 불러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3일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
한민족아리랑연합회 김성준

한민족아리랑연합회 김성준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에게 평양에서 개막되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사상예술성에서나 규모에서나 손색없는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되어왔다. 이번 아리랑공연에도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해서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황홀감을 금할 수 없다. 창조와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셨기에 이북은 세계적인 걸작품을 펴낼 수 있는 예술의 왕국으로 찬양되고 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통일아리랑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 규탄
소파개정국민행동

미국이 이북 등 7개 나라에 대해 핵무기사용계획을 마련했다는 것과 관련해 소파개정국민행동 회원 20여명은 12일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그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극우 파시스트세력
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극우 파시스트세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보수출정식이라는 주제로 후원의 밤행사라는 것을 벌여놓고 반통일 반북대결소동을 벌인데 대해 비난하고 이들을 극우 파시스트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북을 ≪악의 축≫이라고 한 부시의 망발에 대한 세계적인 공분이 터져오르는 속에 이보다 더 극악한 말로 부시에게 아부하는 이들의 작태를 보면서 이러한 쓰레기같은 인간들과 한 동족임이 부끄럽고 나아가 이들이 아직도 이 땅의 정치지도자라고 운운하는 현실이 망신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그냥 지켜보려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실은 그들이 집권을 위해 그 어떤 미친짓도 능히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모든 국민이 떨쳐나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만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극우 반통일 파시스트세력에 맞서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뚜렷이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
폭로 공청회

평양방송에 따르면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을 폭로하는 공청회가 1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북 의학과학원 연구사들과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교수, 박사인 김성중씨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6.25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평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세균탄을 투하해 이북 민중을 대량적으로 살상한데 대해 언급하고 미군이 감행한 세균전만행의 진상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논증했습니다. 그는 야만적인 세균전만행을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야수들이라면서 미국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전쟁시기 이북을 방문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성원들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사, 교수, 박사인 김락제, 박사, 교수인 현창부씨가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무고한 주민들을 질식시키고 중독시켜 죽이는 죄악을 감행한데 대해 밝히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자기들의 죄행에 대해 우리 민중에게 사죄하고 반드시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북에서 감행한 미군의 세균전, 화학전만행들은 세계 면전에 낱낱이 폭로돼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단 성원들이 미군의 만행을 미국 민중을 비롯한 세계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준열히 단죄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조사단 단장인 미국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브라이언 윌슨대표는 미군의 생화학전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만행을 단죄하는 새로운 국제법정이 설립돼 오늘 만난 사람들의 발언이 공개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3일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을 폭로하는 좌담회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을 폭로하는 좌담회가 1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 의학과학원 연구사들과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교수, 박사 김성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평안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세균탄을 투하하여 조선인민을 대량적으로 살륙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군이 감행한 세균전만행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가며 론증하였다.

원사, 교수, 박사 김락제와 교수, 박사 현창부는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질식시키고 중독시켜 죽이는 죄악을 감행한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자기들의 죄행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사죄하고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에서 감행한 미군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들은 세계 면전에 낱낱이 폭로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사단 성원들이 미군의 만행을 미국인민을 비롯한 세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고 준렬히 단죄하여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사단 단장인 미국 ≪평화를 위한 로병조직≫ 대표 브라이언 윌슨은 미군의 생화학전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해 하면서 이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군만행을 단죄하는 새로운 국제법정이 설립되여 오늘 만난 사람들의 발언이 공개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글작품집

최근 조선 교육도서출판사에서는 뛰여 난 창작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글작품집 ≪빛나라 **김정일**장군의 나라≫(2)를 출판하였다.

작품집에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학생들가운데서 60여명의 문학창작적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쓴 220여편의 다양한 문학작품들이 편집되여 있다.

작품집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 땅 끝까지 따르려는 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결의를 담은 작품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주인으로 준비해 가는 학생들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편집되여 있다. 작품집은 글쓰기에 소질 있는 학생들과 글짓기 지도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름 있는 작가들의 창작경험과 학생들의 우수한 작품들에 대한 소개글과 사진도 동심에 맞게 편집하였다.

주석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와 뗄수 없는 유서 깊은 성지이다.

주석께서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20성상의 혈전으로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신 그이께서는 바로 이 평양에서 조국개선의 첫 연설을 하시였다.

평양은 주석께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령도하여 오신 혁명의 책원지이다.

주석께서는 생전에 평양에서 수많은 불멸의 저서들을 집필발표하시였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각국의 당 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고견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석께서는 평양의 면모를 새 조선의 수도답게 일신시키시였다.

광복직후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주체35(1946)년 5월 21일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몸소 첫 삽을 뜨시며 평양건설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였으며 전후시기에는 몸소 평양시복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수도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평양에 일떠선 40여개의 주요 거리들중 그 어느 거리, 어느 건축물에도 주석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하기에 수도의 곳곳에는 주석의 동상과 사적비, 헌시비, 유래비, 기념탑이 세워 져 그이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다.

주체의 최고성지로 완벽하고 가장 숭엄하게 꾸려 진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께서는 오늘도 끝없이 번영하는 평양과 더불어 영생하고 계신다.

주체위업계승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주석의 업적에 대해 강조

13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로작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발표일을 맞으며 주체위업계승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강조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니신 걸출한 위인상과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력사를 놓고 보면 당대에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끈 령도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나라와 인민의 앞날을 내다보며 생전에 령도의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걸출한 수령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20세기 마지막년대의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독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승리자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칠수 있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로작이 조선인민에게 자기 수령제일주의 정신을 더욱 깊이 새겨 주는 고귀한 재부로,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북 돋아 주는 고무적기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필승의 진로를 밝혀 주는 등대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충신의 천만대오를 가지고 있기에 조선혁명의 계승발전은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경대상≫ 체육축전 진행

조선에서 ≪만경대상≫ 체육축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축전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계기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시기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축전은 평양, 남포, 원산, 함흥, 정주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곳에서 축구, 롱구, 배구, 권투, 예술체조, 수영, 수중발레, 사격, 활쏘기, 속도빙상, 빙상호케이, 씨름, 바둑, 보링 등으로 나뉘여 진행되고 있다. 축전에서는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팀과 개별적선수들에게 컵과 메달을 수여하게 된다.

황홀경과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 ≪아리랑≫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참관한 중국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 하면서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중국 광동성 중산시해외려유공사 경리 양영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훌륭한것이다. 이런 훌륭한 공연은 난생 처음 본다. 황홀경과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 ≪아리랑≫공연을 보니 마치 신비스러운 세계에 들어 선듯한 감이 든다. 조선사람들의 지혜와 슬기, 민족성에 크게 감탄하였다.

중국 마카오일보사 기자 류요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보고 조선인민의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의 현실은 서방이 떠드는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조선이야말로 훌륭하고 매력있는 나라, 공고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중국 홍콩봉황텔레비죤방송국 감독 온항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리랑≫공연을 보면서 내가 하늘 나라의 신비경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마치 콤퓨터와 같이 움직이는 배경대와 우아하고 아름다운 률동을 펼쳐 보이는 바닥 장면들은 황홀경의 세계에로 나를 이끌어 갔다. 돌아 가면 ≪아리랑≫에 대해 널리 소개선전할 결심이다.

관록 있는 성악가

조청미는 조선에서 관록 있는 성악배우이다.

일본 후꾸오까현에서 출생한 그는 16살 되던 해인 주체62(1973)년 10월에 귀국하여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가수로 성장하였다.

1980년 1월 그는 나라의 이름높은 ≪피바다≫가극단의 배우로 되였다.배우생활기간에도 그는 음악학원의 연구사로, 음악무용대학의 수재반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가수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었다.

그는 지난 기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와 ≪축원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대공연들에서 합창선창과 녀성3중창, 혼성2중창을 잘 형상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주인공 어머니역과 ≪사랑의 바다≫에서 주인공의 안해역을 훌륭히 수행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는 혁명영화 ≪밀림이 설레인다≫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최현편, 로동계급편, 카프작가편 등의 주제가도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들에 예술단성원으로 파견되여 수십차의 공연활동을 통해 20세기 문예부흥을 이룩한 조선예술의 일단을 잘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7년 10월 제33차 프랑스 뚤루주국제성악콩클에서 특별상도 받았다.

그는 1987년에 공훈배우, 1997년에 인민배우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의 공연을 보아 주시면서 조청미가 노래형상을 색갈 있게 잘 한다고, 혁명가극 ≪피바다≫의 품위에 맞는 진짜 주인공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학생단체들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단체들이 오는 21일부터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벌리려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규탄하였다.

≪한총련≫ 대변인은 9일에 발표한 론평에서 ≪련합전시증원연습≫이 1994년부터 악명 높았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개칭하여 벌려 온 군사연습으로서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가상하여 실전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독수리≫훈련은 년례적으로 벌려 오는 야외기동훈련으로서 침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은 이번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속심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악의 축≫발언으로 하여 긴장된 조선반도에서 다시 대규모의 실전연습이 준비되고 있는것은 조미사이의 합의들의 기본정신과 전면 배치되며 6.15공동선언정신을 훼손시킬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북미기본합의문과 북미공동콤뮤니케의 기본정신을 인정하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충북총련≫은 11일 성명에서 실전적인 2개의 합동군사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은 조선반도전체를 긴장속으로 몰아 넣었던 과거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명백한 부활이라고 단죄하였다.

국제사회계 조선의 일심단결을 찬양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출판보도계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총비서 끌라우디오 깜뽀스는 조선에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높은 경지에서 실현된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은 력사상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사회관계, 혁명적 단결의 정화이라고 지적하였다.

일심단결의 기반우에 솟아 있기에 조선식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라오스국가라지오방송은 조선의 일심단결이 위력하고 공고한것은 바로 전체 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된데 있다고 하면서 그이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중심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총비서 데바브라따 비스와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였다고 말하였다.

벨라루씨신문 ≪웨르네르≫는 최근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면서도 조선만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것은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의 힘이 두렵기때문이라고 썼다.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김정일**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승리의 담보이라고 하면서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있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후승리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규모통합전쟁연습계획 발표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최근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가 21일부터 27일까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훈련을 통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3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이번 통합훈련은 말이 훈련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북침공격작전이라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로동신문≫은 내외호전광들은 통합훈련을 통해 여러갈래로 감행하는 북침전쟁연습들을 하나의 선에 꿰여 최종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완성하며 임의의 시각에 우리를 반대하는 실전에로 넘어 갈수 있는 준비를 갖출것을 꾀하고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악의 축≫망발을 줴치며 반공화국대결, 전쟁바람을 미친듯이 일쿠는 호전광 부쉬의 남조선행각직후에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통합전쟁연습계획을 발표한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계획적인 북침도발이며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그것은 지난 시기에 중단했던 북침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연으로서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의 서막이다.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대화≫요 뭐요 하는것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완전한 거짓이고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이 극히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 섰으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야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불뭉치를 들고 미쳐 날뛰는 내외원쑤들의 모험적인 책동을 경각성있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미국이 군사적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하면서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쓰디쓴 참패와 죽음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쉬의 망발은 조선인민에 대한 모독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상설서기국이 아시아행각기간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 부쉬의 망발을 규탄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부쉬의 발언이 그 어떤 ≪무기≫나 ≪테로≫때문이 아니라 국제여론도 평가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그의 체질적인 불만에서 나온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부쉬의 망발이 조선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대한 모독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부정선언과 같은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부쉬의 망발을 규탄 인디아공산당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가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줴친 부쉬의 망발을 규탄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부쉬의 망발은 전 세계 특히는 조선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해 보려는 미국의 호전적이며 발악적인 책동의 일환이라고 폭로하였다.

인디아공산당은 미행정부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책동을 규탄하며 그것을 반대해 나설것을 광범한 세계여론들에 호소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 정당들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 표시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은 부쉬의 망발을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침략전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 내 놓은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로므니아근로당 총비서 니꿀라에 이온 크리스띠안은 전문에서 부쉬의 망발은 국제법과 국가들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되며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조국통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꾸준한 노력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디아혁명적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비서 아바니 로이는 전문에서 부쉬가 자기의 망발에 대하여 즉시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을 당장 철수시키고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 막는 행위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19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3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던 시기, 우리를 반대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졌습니다. 미제는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군사적 위협과 도발책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 할 목적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공격적 성격의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조미회담이 진척되고 경수로재건에 대한 조미합의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항공모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 놓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모하게도 북조선에 대한 군사력 사용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떠벌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과 압력, 전쟁책동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그런 일촉즉발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며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영도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민군대 안에 강철같은 규율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고 전투력의 원천이며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아무리 무장장비가 좋고 군인들의 전투기능이 높아도 규율이 없으면 그런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의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군사규정학습을 강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주체83(1994)년 9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군사규정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군사규정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부대들에서 지휘체계를 똑똑히 세우는데도 좋고 부대를 장악하는데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사규정학습을 당학습과 같이 시간을 많이 주어 진행하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장병들과 군관들이 여기에서 모범이 되며 군인들이 군사규정의 내용을 담은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도록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군사규정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밖에도 그 해 9월 23일과 주체85(1996)년, 1월과 3월 등 여러 기회에 걸쳐 군사규정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말씀과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모든 장병들이 군사규정에 정통하게 되고 사업과 생활을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해나가게 되였으며,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 군풍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어 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한 인민군 군인들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데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주체87(1998)년, 태양절에 전선동부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 군인들의 외모를 보아주시면서 인민군대의 정규화적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외모를 보아주시다가 일군들에게 군인들의 군복색깔이 왜 다 같지 않은가를 알아보시고 앞으로, 염료문제를 해결해서 군복색깔을 통일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최근 당에서 인민군대의 정규화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군인들의 군복착용규정을 일부 변경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인민군대에서는 그에 맞게 정규화적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그 외모에 있어서도 정규화적 면모를 손색없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한, 각급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이 부대를 강하게 관리통제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각급 참모부들이 주기적으로 아래단위에 내려가 상급의 명령지시집행정형과 규율준수정형을 지도・검열・총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노는 정치기관, 정치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시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 정치일군들로 하여금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이 요구성을 높일 수 있게 당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극 안받침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강철같은 규율이 확립되고 정규화적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에서 최상의 으뜸가는 군사적 위력을 가진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전군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훈련은 군인들의 군사적 자질을 키워주는 기본고리이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부 일군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군사지휘관들을 사상이 좋고 전투지휘능력이 높을 뿐아니라 배짱이 있게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4월,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군사지휘관들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포소리가 쿵쿵 울리고 진지가 불바다로 변한다 해도 끄떡없이 작전과 전투를 영활하게 조직 지휘할 수 있게 준비시킬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체86(1997)년 4월, 1211고지와 지리산 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부대를 시찰하시면서 군사지휘관들은 머리가 픽픽 돌고 싸움마당에서 임기응변하며 누구도 생각 못하는 전술을 쓸 줄 아는 그런 용감하고 슬기로운 지휘관들로 키울데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편, 현대전의 요구와 혁명무력의 실정, 그리고 군사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각 군정, 병정, 전문병 지휘성원들을 키워내는 중등 및 고등교육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전법에 정통하고 현대전을 능숙하게 조직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성원들의 대부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이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전군의 혁명적 훈련기풍을 세워 모든 군인들과 부대들이 전투 훈련에서 일대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전군을 주체의 훈련관으로 무장시키고 모든 부대들이 훈련을 중심과업을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뿐아니라 교조주의, 도식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의 특성과 날로 노골화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해서 훈련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주체87(1998)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면서 군사훈련을 악착스럽게 벌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까밝히시고 일당백의 비결은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부대들에서 훈련강도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과 12월, 다음해 2월에도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을 뿐아니라 때로는 최전형초소와 섬초소까지 찾으시고, 때로는 함선과 비행기, 땅크에 오르시여 장병들의 훈련을 몸소 지도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모든 인민군 군인들은 유사시 그 어떤 전투임무도 감당할 수 있는 만능의 싸움꾼을 자라났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훈련상태를 직접 본 이전 소련 국방상 드미트리 야조프 원수는 자기의 글에서 ≪명장밑에 약졸이 없다고 병사들의 준비정도는 빈틈이 없고 전투동작은 정확하고 매우 세련되여 있었다. 그것은 볼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모든 찬사를 쳐오르는 것이였다.≫라고 썼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대강화를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군영도 역사는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위인 중대강화를 위한 혼신으로 이어진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국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의 첫 현지지도를 진행하신 것도 바로 다박솔 중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셨습니다.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장군님께서 중대 지휘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3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대회가 있은 직후인 3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중대는 군대의 기본 전투단위로써 전군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고리라고 하시면서 중대를 강화하자면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을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회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거의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패기가 있고 사기가 매우 높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있다, 중대장들에게 군사지식과 전법을 잘 배워주어 그들을 훌륭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7(1998)년 8월에는 인민무력부와 군단사단급의 일군들이 중대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중대를 도와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12면에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5백번째 수요시위

13일 정오 서울 중학동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0명의 정신대 할머니와 30여명의 정대협 회원들은 11년동안 지속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5백차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윤정옥정대협명예대표는 ≪5백회나 이어온 수요시위는 일본정부에게도 수치스러운 숫자일뿐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력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국민기금을 앞세워 할머니들의 명예마저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미경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수요시위를 시작한 11년 전과 하나 다를 바 없지만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발언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전세계에 알리고 이를 규탄하게 만들었다≫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격려했다. 이의원은 또 ≪그러나 이 운동을 시작하고 벌써 6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다≫며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일본이 하루빨리 그들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수할머니(73)는 ≪일본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때까지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며 정신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황금주할머니(82)는 ≪정신대 시절에 나는 모르고 인육을 3번이나 먹었어, 당신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험한걸 많이 보고 당했어≫라며 일본정부는 이런 정신적인 피해까지 다 배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황 할머니는 또 ≪나도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낳아보고 싶었다≫며 가슴에 묻어 온 소망을 드러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날 수요집회는 경찰이 입구를 봉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학생들과 잠시 마찰을 빚었다. ≪5백회 수요시위 규모가 너무 커질까봐 일본대사관 측이 입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이 11년째 정대협이 수요시위를 열어왔던 일본 대사관 인근의 통행을 가로막은 것.

그 결과 이날 ≪할머니 지킴이≫ 발대식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1백여명의 학생들은 시위장소로 들어올 수 없어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 대사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2중 동시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정대협의 지은희 상임대표는 ≪정신대 할머니 대부분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거동을 도와드리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할머니 지킴이를 구성, 5백회 수요집회 때 발족식을 하려 했는데 대한 민국의 경찰이 일본대사관의 요구를 너무 충실히 들어줘서 예정에 차질을 빚게됐다≫며 ≪이런 우리나라 현실에 애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와 21일 방한 예정인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14

11면에서 계속

장군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에 따라 중대강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를 강화하고 중대 지휘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군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88(1999)년 2월 또다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중대장대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주체62(1973)년 10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를 녹음으로 청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대회가 끝난 후인 3월 1일, 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들을 접견해 주시고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영도의 나날에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들을 쇠소리 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중대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전투정치훈련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 중대장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가는 중대강화의 자랑스러운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참으로 모든 중대를 불패의 전투대오로 꾸려 전당적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선군영도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군영도 업적으로 됩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국민적인 차원의 인터넷검열반대운동으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발족식 열려...

3월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53개 제민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발족식이 열렸다. 오늘 발족식에는 서울대 김진균교수를 비롯해서,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신부, 이덕우 변호사, 한국 노동네트워크 협의회 김승만 간사, 진보넷 장여경실장, 문화연대 선용진간사 등이 참여했다.

2000년 7월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 하여 반대운동을 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법안을 가지고 말바꾸기식 대처만 해 왔을 뿐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문화연대 선용진 간사는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와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을 공대위는 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대한 폐정 개정 재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 재검토를 위한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실장은 정통윤에 대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윤위원회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공윤 위원회와 같은 다른 종류의 규제위원회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다. 하지만 정통윤은 그런 문제제기가 별로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통윤에 대한 문제제기를 활발히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김진균 교수는 과거에 자신이 논문형식으로 쓴 글도 검열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검열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해외의 경우 인권선언을 하고 난 이후 사회적으로 학문도 발전하고, 학습권도 향상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문화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통제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검열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출했다.

홍근수 목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로운 언론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인데, 이런 인터넷을 검열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검열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국가검열 철폐를 위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통윤 위상 재검토, 법률 폐지 · 개정 · 대체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발을 위해서, ≪대안적인 규제모델 마련 및 정책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혁기자
참세상뉴스 2002/03/13

왜 이 때 대규모 군사훈련인가?

한미연합 도하훈련

한미연합사는 해외기지로부터 증원되는 미군들을 수용·배치하는 지휘능력을 훈련하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통합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 괌, 미국 본토로부터 한국에 전개되는 미군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연합전시증원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각각 4월과 10월에 분리돼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보고 지휘소 훈련과 야전 기동훈련을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보다 실전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기존에 별도로 시행되던 두 훈련을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을 제고하는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3월 5일 미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실전훈련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훈련은 실제 전쟁계획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실전훈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북, ≪사실상의 선전포고≫

이북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북이 13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면적인 북침공격 작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계획적인 북침 도발이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한층 강화된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 훈련이 2-3년전부터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이북을 자극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북 등에 핵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비밀≫이 유출되면서, 이북은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며 제네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을 경우, 한반도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한미연합전략은 훈련의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전력증강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썽많은 F-X 사업은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이고, F-X에 가려진 다른 대규모 전력증강사업도 척척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북 역시 자위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기로 한 역사적인 합의가 아득한 옛일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라고 21일부터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이북이 서로의 불신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각자의 길을 갈 경우, 우리의 안보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시점이다.

정욱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4

부시 핵정책은 공멸 초래

미 민주당 의원 ≪인류의 종말을 갖고 놀고 있다≫ 비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가 미국의 동맹국과 경쟁국의 우려 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 주요 언론 및 여야 의원들이 이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2일자 ≪핵 악당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의회에 제출된 NPR 보고서를 정부로 되돌려보내 수정해야 하며 이 정책으로 미국의 미래세대의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 방부 보고서의 문제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의 기준을 너무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비핵국가들이 부담을 느껴 핵무기가 필요하다 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북이나 이란 등에 대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라는 요구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절제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며 핵 무기를 사용할 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로버트 시어는 12일자 LA타임스 기고문에서 NPR 시나리오는 숙고한 끝에 나온 군사 독트린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과장된 테러분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좌절감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며 군부가 핵 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시어는 아랍-이스라엘 평화가 대테러전의 최우선 순위임에도 부시 행정부는 방산업체들 과의 관계 때문에 외교적 노력보다도 군사적 옵션(선택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핵무기 발상 도 그런 맥락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미국의 NPR 보고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강경파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위험 한 고물로 생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NPR과 관련된 행정부의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데니스 쿠치니시 의원(민주)은 NPR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핵 선제공격론에 대해 ≪라커 룸에서의 농담처럼 그런 말을 던진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부시 행정부 관 리들이) 인류의 종말을 갖고 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국가안보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셰이스 의원(공화)도 ≪핵무기를 가방에 넣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미사일을 쏘겠느냐≫고 반문하며 ≪핵 선제공격 은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정석기자
노동일보 2002/03/13

부산대, 미제품 불매운동

미국미국반대를 외치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제품불매운동은 예전 한총련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외치던 ≪주한미군철수하라≫ 등 구호식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이다.

80, 90년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소수의 사회단체에서만 예기되던 ≪미국반대≫라는 구호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얘기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불매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부터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효진(전기전자정보컴퓨터공 1)씨는 ≪지난해 9.11테러사건이나 최근의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동계올림 메달사기사건 등을 거치면서 더욱 반미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실제 이런 반응은 예전에 비해 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학생들의 반응에 힘입어 34대 동고동락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윤용조, 철학 4)에서도 학생들의 미국제품불매운동에 적극 동참 하여 미국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족효원 맥도날드 안가기 주간≫을 정해 한 주동안 집중적으로 미국제품불매운동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또 ≪미제 안쓰기 스티커≫내 사물함에 붙이기 운동을 계획 중이며, ≪미국제품 안쓰기 운동 수기≫나 ≪반미 영상물≫, ≪문예≫등을 공모하고 있다. 이런 학내의 흐름들을 4째주 단과대 학출범식과 종학생회 출범식 공간에서 모아갈 예정으로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공대 과학생회장들의 일인시위가 지난 11일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학교앞 맥도날드앞에서 진행중이며, 동아리연합회에서는 14일 막도날드단(막자! 맥도날드!)을 구성하여 맥도날드 불매 선전전을 펼쳤다.

미국제품불매운동. 그 동안 헐리우드영화 보지 않기, 성조기 티셔츠 입지않기 등 몇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그러든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민족적 감정에 얽매인 감정적인 대응만이 아닌 미국의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으로 좀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대 정우윤기자
유뉴스 2002/03/14

비판적 지지자들이여, 진보세력의 실체를 인정하라

강준만 교수에게 부치는 한 진보운동가의 편지 - 이호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 글은 월간 ≪말≫ 1월호 ≪강준만 1박 2일 직격인터뷰≫에서 제기된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민주노동당원인 필자는 강준만 같은 비판적 지지자들과 진보정당 운동세력 사이에는 화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으며, 그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에서도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강준만 교수님과 저는 이회창의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수구세력에 반대하면서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배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노동당원이 되었고 당신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당신은 ≪이회창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조직적 세력을 확대하여 보수 양당의 정치적 독점을 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개혁적 보수세력과 수구적 보수세력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준만과 나의 입장 차이

냉엄한 정치적 현실로 들어서면, 비판적 지지론자들 대다수는 개혁적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무비판적 지지나 ≪사랑≫을 하게 되고, 진보적 개혁에 대해 비판적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힘을 개혁적 보수세력에게 몰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저와 같은 민주노동당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수적 개혁의 한계에 대한 폭로와 비판에도 적극적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수구세력을 극복할 힘을 진보정당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들어서면 수구세력에 반대하면서 대안을 찾는 유권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양자의 경쟁이 격화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판적 지지자들 대다수는 말합니다. ≪진보정당에 주는 표는 무의미한 표다. 당선 가능한 개혁세력에게 힘을 모아 수구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자.≫ 그러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보수 양당에 던지는 표는 보수 양당체제를 강화시킨다. 보수 양당 중에 누가 권력을 잡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보진영의 독자적(정치적) 힘을 키워가는 일이다.≫

저는 당신과 같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저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보정당이 이를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차이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두 당이 근본에서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야합하여 이 사회를 나누어 지배하고 있는지는 지나치게 소홀하게 봅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것, 양당의 보수적 동질성이 그들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 양당의 보수적 차별성이 저에게는 그들만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정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에게 진보적인 정치란 보통 사람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입니다. 노무현이나 김근태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진보적인 정책이나 이념을 표방해도, 개인의 정치적 인기나 유명세에 의존하는 조직이나 정치세력, 그리고 정당은 이미 일반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보적인 민주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성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당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성장이며, 그래서 당 대표나 당 관료들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평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정당의 성장입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뭉치고 단결하는 것은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성장과 관계가 멉니다. 또한 우리는 보수적 개혁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민주당의 ≪386세대 의원≫인 임종석은 얼마 전 자신이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를 ≪100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60이라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민주노동당원은 ≪되지도 않을 100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 비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거나 사기입니다.

임종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민주당은 60의 개혁을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수구, 극우, 기득권≫ 등으로 몰고,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이며 과격하고 관념적인 좌익 운동권≫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 개혁적 보수≫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주민과 계층이 현실에 대한 불만, 개혁에 대한 바람은 강하지만 의식은 보수적인 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60의 보수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임종석이니 노무현, 김근태 같은 ≪정치적 상품≫도 필요합니다. 그 60이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자신들이 들어가야만 그 60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그 보수적 개혁이 대단한 변화이며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이라는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보수양당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며 진보정당의 정치적 독립과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100과 우리의 100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도 100을 당장 실현할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도 지금 실현가능한 내용을 현실적 목표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현실적 목표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지점이 ≪개혁≫과 ≪조선일보 반대≫와 ≪반한나라당≫과 같은 것에 있을 수 있지만, 노동정책이나 농민정책처럼 보수 양당의 현실적 목표가 거의 비슷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현실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은 지점도 매우 많습니다.

. . .

이회창 반대가 진보세력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듯이, 조선일보 반대도 언론개혁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회창 반대나 조선일보 반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각자 자신의 내용과 의미,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나서는 싸움입니다.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선에 우리가 함께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 또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존재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적 개혁주의자인 김대중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나 반민중적 정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자들의 유감은, 이 땅 민중들이 민주당과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전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싸우고 있다는 불평으로 터져나옵니다. 이 땅의 민중이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면서 보수 정치세력들의 계급적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식의 성장과 진보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진보세력의 입장을 존중하라

대다수 비판적 지지론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진보정당이 현실 정치에 제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되지도 못하면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고 더구나 선거에까지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 단 몇 사람만으로라도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표를 잠식하면서 진보정당운동은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도에서는 진보정당의 성장으로 민주당이 지지기반을 더 많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론자들은 진보정당이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여 분산시키고 반한나라당 전선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난하고 짜증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수적 개혁주의자들과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그러나 지난 1987년 이래 독자적 진보정당 세력과 보수적 개혁주의자들과 연합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적 개혁주의자들과 그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자들이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존중하기보다 끊임없이 부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보수 개혁주의자들이 반한나라당 연합을 원하면 우리의 독자성과 그 전선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만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대통령선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지지받은 비율만큼의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5%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회의석 13자리 이상, 장관 1자리 이상을 보장하면서 한나라당에 같이 대항하자고 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운동이 시작된 이래 한 번이라도 이런 진지한 제안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전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연합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합은 그런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깎아내리며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보수적 개혁주의자들로 보아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가치조차 없는 미미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진보세력 또는 노동자세력을 ≪적≫으로 만들고 기득권세력 또는 수구세력과 타협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우리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특히 진정으로 반한나라당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필사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보세력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진보정당의 성장, 조직력,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이지, 한나라당의 집권저지가 아닙니다.

보수적 개혁세력이 진정으로 우리를 연합할 대상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이것은 지난 1987년 이래로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디지털말 제189호
2002년 3월 발행

합법적인 대중조직, 합법적인 대중운동에 대하여 (2)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1호)

≪올해 청년학생운동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중의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청년학생들이 대중투쟁의 선봉장으로써 열혈의 심장을 터치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학생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마련된 합법적 공간을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정초부터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시법개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철회, 등록금인상반대, 학생운동탄압반대 등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반민주적 폭거와 제도적 장치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히 벌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정초부터 몰아친 당국의 학생운동말살한파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한파속에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규씨, 남총련 10기 의장 최종은씨 등 수많은 애국학생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탈퇴를 종용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인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물리적 탄압과 함께 회유기만책동도 끊기지않고 자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한총련의 위상과 기개를 과시하기 위한 열풍이 힘있게 몰아쳤습니다. 2월 1일부터 진행된 남총련소속 청년학생들의 단식농성입장과 5월 2일에 발표에 발표된 한총련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서나 울려나왔습니다. 당국이 애국학생들을 연행했을때에는 국가보안법철폐와 구속학우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한총련의 존엄을 지켜온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그 불굴의 기개로 청년학생들은 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4월 6일에는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를, 5월 3일에는 9기 한총련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학생들은 꺽이면 꺽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용맹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 . .

지난 5월 3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총련합법화 및 한총련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뭇고 9기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한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을 보는 각계민중의 시각을 잘알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이 옳은 투쟁방법과 전술을 구사하고 학생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킨 것 역시 올해 학생운동에서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와 같이 호소문, 성명과 같은 문서들이 수많이 발표된 적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방해하는 미국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사사건건 폭로하는 문서들뿐만 아니라 노근리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왜곡발표한 미국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화책동을 규탄하는 글 등 수많은 문서들은 불의에 타협없고 정의에 과감한 청년학생들의 정신과 기개를 남기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통일 싹 자르는 미국놈들 막아내자≫, ≪외세공조 파괴하고 민족공조 구축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등 현실의 절박한 요청과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하여 그들을 투쟁에 궐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학생운동이 거둔 성과는 자못 크며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물론 한총련의 활동에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사항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학생운동에서는 일단 시작한 투쟁을 끝장을 볼때까지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벌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한 반이회창투쟁이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철회투쟁만 봐도 끝장을 볼때까지 더욱 확산고조시켜 나가지 못하고 많은 경우 일회적 투쟁에 머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대중화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끈기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대중화가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방법과 전술에서도 주어진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생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돌출적인 투쟁방법들이 의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선봉대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다해야할 우리 청년학생들이기에 자기 검토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며 냉철한 자기 성찰과정을 통해 결함들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랑으로 더욱 우뚝 솟을 것입니다.≫(2001년 학생운동을 점검해본다, 구국의소리 2001. 12. 30 – 2002. 1. 5)

≪**김혜정 :** 정말 이 해의 운동가들 앞에 제기된 과제가 아주 막중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럼 새해에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지난해 각계 민중의 대중운동결산에서 찾은 교훈적인 문제들과 결부해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 . .

김현규 : 그렇죠.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지난해 학생운동이 종전보다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게 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렇게 된 건 학생운동이 연초에 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불러 일으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대담하게 투쟁을 조직전개하기 보다는 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계획적이고 모략적인 탄압책동으로부터 한총련을 고수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 이런 말도 →

광고

신입생들에게 권고하는 교양서 1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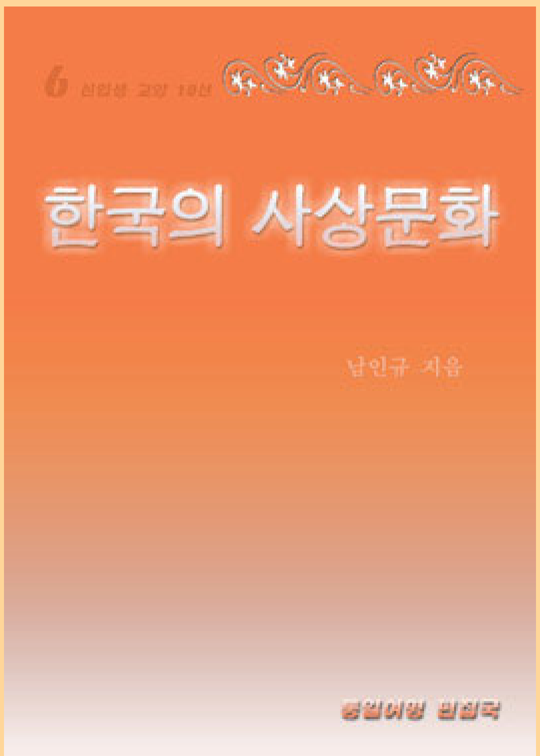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는 대학시절이기에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입생시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시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시절의 길잡이가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신입생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기를 권고하는 교양서적들입니다. 신입생여러분들은 이 열 권의 양서를 정독함으로써 향후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5. 재미있는 철학강의

중국청소년들을 위해 중국최고철학가들이 집필한 대중적인 철학교양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사성어나 재미있는 일화들을 인용하며 변증법과 유물론을 해설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이 책을 통하여 그간 사회주의철학이라고만 들었던 변증법과 유물론이 사실은 동서양의 철학역사의 최고봉에 이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증법과 유물론을 몰라서는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도 깊이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시절을 보낸 우리의 결론!

6. 한국의 사상문화

아마 한국만큼 잡사상과 양키왜색이 판을 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청년들, 민중들의 건강한 사상문화를 좀먹는 그릇된 사상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신입생들은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되는 대학시절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하여 먼저 사상문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문화는 사람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있잖아요. 그런만큼 일단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대오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투쟁공세를 벌여나가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이밖에도 많은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새해에는 이같은 부족점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하겠죠. 그러자면 각계의 대중운동단체들의 역할을 한층 높여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 :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새해에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또한 운동가들이 투쟁전술을 잘 적용하고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잘 이용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진명 : 옳으신 말씀입니다. 6.15공동선언발표로 이 땅에는 대중운동을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합법적 투쟁공간이 마련됐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걸맞게 각계의 대중운동단체들이 투쟁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모를 박고 대중투쟁을 전개하게 된다면 각계 민중들속에서 민주화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반통일보수세력이 머리를 쳐들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민주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날아가 버릴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대중운동도 보다 힘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해 대중운동에서는 이런 점이 미약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김현규 : 그와는 좀 다른 얘긴데요. 일부 사람들속에서 6.15공동선언발표로 새롭게 적용된 정세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한데로부터 기분주의적인 돌출행동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수구보수세력과 공안당국에 탄압의 구실을 준건 물론이고 대중운동단체들의 **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죠. 대중운동단체들은 여기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고 새해에는 조성된 정세와 온갖 합법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전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새해 대중운동 어떻게 활성화할까, 구국의소리 2001. 12. 30 – 2002. 1. 5)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 민중의 통일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민중의 이같은 통일지향에 걸맞게 우리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써의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하자면 학생운동의 사령탑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도 학생운동탄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생들에게 한총련탈퇴를 종용한거라든가 또 검찰경찰당국이 한총련탈퇴를 강요하고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일대 검거소동을 벌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학생들이 체포구속됐고 또 범청학련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당국의 이같은 탄압만행으로 인해 한총련의 활동이 심히 억제되고 학생운동발전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고 있어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며 학생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천만번 부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직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학생대중조직입니다. 청년학생들은 해마다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대학총학생회장과 한총련의장을 선출합니다. 그런가하면 한총련은 전대협의 뒤를 이어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반미투쟁의 첫 봉화를 지펴올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이 땅에 반미열풍을 몰아온 것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단장벽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파열구를 내고 통일의 물꼬를 튼 것도 청년학생들이였고 오늘은 그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피끓는 심장에 새기고 그 이행의 앞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입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총련의 열혈청춘들에게 통일의 꽃, 통일의 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고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총련이 벌인 모든 활동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탄압당해야할 이유로 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학생운동말살을 노린 흉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통일에로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 하겠습니다.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말살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겁니다. 만일 당국이 대세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해서 한총련탄압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한총련의 백만청년학생들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와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과감한 투쟁으로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속학우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적단체규정철회투쟁을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은 투쟁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주노총과 전농,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활동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한총련이 겨레의 자랑으로 우뚝 서야 할겁니다.≫(이적단체규정 철회돼야, 구국의소리 2002. 1. 20 – 1. 26)

≪백만청년학생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단체들이 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제기하자≫라는 구호를 치켜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서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철폐투쟁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보법철폐투쟁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은 서로 별개의 투쟁이 아닙니다.

. . .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 투쟁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국학생들을 체포구속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구속학우석방투쟁을 국보법철폐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벌여나가야합니다. 이와 함께 국보법어기기운동, 국보법반대여론조사활동, 국보법철폐를 요구하는 전화제보받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국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이 투쟁을 국보법철폐를 반대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해서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올해를 국보법철폐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구국의소리 2002. 1. 27 – 2. 3)

≪**윤정원 :** 지난 1월 31일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가협 동호회, 4월혁명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간담회를 시작하며 권오헌 민가협공동의장이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의 중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강위원 전 한총련의장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을 보고를 하며 작년 9월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위원 전 의장은 한총련이적규정철회를 위해서 사회각계 단체를 망라하는 사회대책위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 부산, 울산등지에 지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

윤정원 : 간담회를 제안했던 권오현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대책기구마련을 위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사회대책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로부터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준비모임을 만들 것을 결정을 했어요. 이후 간담회는 준비모임의 대표로 권오현민가협공동대표를 집행책임자로,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앞으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 .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직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학생대중조직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은 해마다 진행하는 대학총학생회장선거와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어요. 청년학생들은 해마다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대학총학생회장과 한총련대의원과 의장을 선출을 하고 한총련이 벌이는 활동을 벌이면서 한총련은 전대협의 뒤를 이어 각계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반미투쟁의 봉화를 치켜들고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이 땅에 반미열풍을 안아온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것도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였고 대학가의 통일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그 이행을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온 민족은 높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 . .

윤정원 : 그렇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발을 맞춰서 이 투쟁을 더 강도높에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청년학생들이죠. 무엇보다도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거예요. 당면해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금 벌이고 있는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구축사업≫을 강도높게 진행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목소리가 각계 민중들속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합니다.

. . .

윤정원 :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하겠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한총련이 각대학총학생회의 연합조직으로 97년 5기 출범식이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서 해마다 산출되는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구속, 수배돼서 감옥과 또 외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잖아요.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단체규정철회≫, ≪구속학우석방≫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각계 민중과 연대를 해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 고조시켜나감으로써 당국의 부당한 한총련의 이적단체규정을 철회시키고 합법화를 실현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총련이 겨레의 희망으로 우뚝서게 해야 할겁니다.≫(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구국의소리 2002. 2. 27 – 3. 1)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청년전위들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통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총련을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켜 그 대중적 지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이적규정≫의 무력화와 학생운동의 대중화라는 절박한 당면과제를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001. 1. 20) (끝)